

순천시, 일자리·정주 여건 개선 '청년 친화도시' 조성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681억 투입 5대 분야 100개 사업 추진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 주택 구입·전세대출 이자·주거비 지원 등

순천시가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본격 나섰다.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총 681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 10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25건(99억4600만원) ▲주거 12건(155억4900만원) ▲교육 13건(121억7500만원) ▲복지 31건(207억6300만원) ▲참여·권리 19건(96억9900만원)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청년 인재양성-일자리-정주'로 이어지는 정책 구조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시는 청년정책의 성과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추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청년자립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지역 특화산업인 문화콘텐츠·우주방

산·그린바이오 분야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1년간 월 15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시행한다. 주거 분야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대출 시 각각 대출이자를 3년간 월 최대 25만원, 4년간 월 최대 10만원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형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등도 병행한다. 교육 분야는 지·산·학 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

고 일자리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촘촘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는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문화향유를 위한 바우처 사업, 결혼축하금 생애 1회 200만원 지원 및 임신·출산정책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을 돕는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주도적인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 공동체 사업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 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

을 20%까지 확대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운영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연계해, 부서간 협업 기반의 분야별 사업 발굴·추진 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청년친화도시 정책과 시행계획을 같이 고려해 제감·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 인재를 키워 지역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취업 이후의 삶까지 순천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차선 도색 공사 직영으로 바꾸니 예산 80% 절감

순천시, 오천그린광장 자체 시공 사업비 줄이고 행정 효율성 향상

순천시가 오천그린광장 주차장 차선 도색 공사를 자체 직영 방식으로 추진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주차장 차선 도색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시행해 왔으나, 이번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와 공원관리 인력을 활용해 자체 시공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줄이는 한편, 공정 관리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이번 주차장 도색은 주차면 766면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도급 공사로 시행할 경우 약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직영 도색을 통해 약 80%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주차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작업을 실시했으며,



순천시 오천그린광장 주차장.

<순천시 제공>

설 연휴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의 편의를 고려해 공사기간도 단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체 시공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

다"며 "절감된 재원은 시민 편의시설 확충과 공원 환경 개선에 재투자해 더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치유농업사 전문인력 양성

1·2급 양성과정 교육비 70% 지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계획

곡성군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사(2급) 양성과정 교육비를 지원한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정신·육체적 건강을 유지·증진·회복하는 모든 농업적 활동으로, 치유 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업 교육, 치유농업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치유농업사(1·2급)는 국가자격증으로, 취득 기준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1급 전국 4개소, 2급 전국 20개소 지정)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간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1차, 2차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신청 희망자는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81)와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전남도립대학, 전주기전

대학 등)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을 통한 최종 교육생 선발은 양성기관에서 선정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양성기관 교육생 합격 후 교육을 수료한 자 5명을 선발해 교육비 140만원 중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 치유농업사를 발굴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치유농업 발전과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관내 두 번째 치유농업사 1명을 배출했다. 곡성군은 치유농업사를 활용하여 관내 치매환자, 우울·스트레스 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박순국 기자 psk8210@kwangju.co.kr

보성군, 산림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성군은 지난 23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직무-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보성군이 지난 23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2026년 산림분야 기간제근로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직무-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가로수관리작업단, 숲가꾸기페트를, 산림자원조사단,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분야 근로자가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전 근로자의 안전 이행 서약을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작업 전 위험 요소 점검, 보호구 의무 착용, 무리한 작업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심으로 안전 중심의 작업 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산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공유하고, 기계톱·초기 등 동력 장비 사용 시 주의 사항, 벌목 및 가

지시기 작업 시 협업 체계 유지, 경사지 작업 시 추락 예방 요령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작업에 사용되는 연료 및 화학물질의 안전 취급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도록 해 물질안전보건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장시간 야외 작업 환경을 고려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팀 간 소통 교육도 병행했다. 특히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방법과 위험 요인 공유 절차를 안내해 일상적인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 현장에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환경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기본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기적인 직무-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산림근로자를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 자금난 소상공인에 200억 이차보전 지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융자 추천...최대 2년간 연 4% 이자

여수시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다. 시는 연 4%의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200억원으로 여수시와 협약

체결한 9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분기별 접수 일정에 맞춰 여수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서류 심사 후 융자 추천이 이뤄지며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관을 참고하거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061-659-3607), 여수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061-659-576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어르신들, 운동으로 건강 지키고 일상에 활력

12월 15일까지 수중 관절 운동교실 60세 이상 90명 모집...주 2회 수업

고흥군이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12월15일까지 '아쿠아(수중) 관절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퇴행성 관절염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이다. 증상이 심해지면 관절 변형과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이에 군은 물의 부력을 활용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증 완화와 근력 향상, 체중 조절을 동시에 돕는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흥문화회관 실내수영장에서 운영되며, 60세 이상 군민(1966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총 90명을 모집해 3기로 나누어 진행한다. 기수별 인원은 30명이며, 주 2회(화·목), 회당 2시간씩 총 24회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사전 건강검정 및 교육 ▲관절 수중운동 ▲아쿠아로빅(수중에어로빅) ▲사후 건강 평가로 구성된다. 사전 단계에서는 신장, 체중, 혈압, 혈당, 체지방 등 기초 건강지표를 측정하고 관절염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과 적정 체중 유지 교육, 수영장 안전수칙 안내 등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6주간 관절 가동 범위 향



고흥군이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수중 관절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 운동,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등 개인 맞춤형 수중운동을 진행하며, 이후 6주간 아쿠아로빅을 통해 심폐지구력과 전신 체력을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동일 항목을 재측정해 건강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고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쿠아 수중운동은 관절에 부담이 적어 운동이 어려웠던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관절 통증 완화는 물론 근

육량과 골밀도 증가 등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쿠아(수중)관절 운동교실 참여자 모집은 기수별로 진행되며, 2기는 5월 말까지, 3기는 8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신규 참여자를 우선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팀(061-830-667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구례군,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공모

거동불편자 신체활동 지원 등 4개 분야 3개소...다음달 최종 선정

구례군이 통합돌봄지원사업 지역특화 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거동불편자의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틈새 온기케어서비스, 병원 이동 지원을 위한 구례발 동행서비스, 결식 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영양식 지원서비스, 주거안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등 4개 분야로 추진되며, 공모 규모는 총 3개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27일까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행 역량과 전문성 등을 종합 심사해 3

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복지 정책"이라며,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